

원피스 · 투피스 · 스리피스

1. 블라우스(blouse)

여성용 상의를 말하며 블라우스의 어원은 “늘어진 느낌의 볼룩한 모양” 또는 “혈령한 모양을 만든다”라는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블루즈(blouse) 또는 슈미지에(chemisier)라고 하여 어깨에서 허리선 또는 엉덩이 선까지의 여성, 아동용 동의류의 총칭이다. 따라서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 외에 스웨터와 작업용 스목도 포함된다.

블라우스는 원래 여성용 원피스의 동의에서 변화한 것과 남자용 와이셔츠에서 변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에는 블라우스의 단을 스커트 안으로 넣어 입는 터킹 블라우스 또는 언더 블라우스와 스커트 위로 내놓고 착용하는 오버 블라우스가 있다. 뒤의 것은 남자용 셔츠 웨이스트 블라우스에서 발전하여 온 셔츠 블라우스이며, 슈트 아래에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정식 옷차림으로는 이 블라우스 위에 상의를 걸쳐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테일러 슈트가 여성복에 도입되면서 스포티한 옷차림의 경우는 상의 대용으로 셔츠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서 평상용에서 이브닝용으로, 재킷 아래에 착용하는 용도뿐 아니라 길이를 길게 해서 재킷 품의 블라우스까지 널리 이용된다. 옷감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스포티한 블라우스 감으로 포플린, 브로드 클로스, 마, 모직 화학섬유 등이며, 드레시한 블라우스는 스카트와 조화를 이루어서 외출복 또는 칵테일, 이브닝 드레스용으로도 사용되므로 견직, 새틴 조젯 레이스 등이 사용된다. 이 밖에 군복의 재킷도 넓은 의미에서는 블라우스라고 할 수 있다.

2. 원피스(one-piece)

위아래가 붙어 하나로 된 옷의 총칭으로 원피스 드레스의 준말이다. 1장의 천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절개선이나 웨이스트 봉합선이 있어도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부르며, 보통 드레스라고 하면 원피스를 말한다.

평상용의 스포티한 것에서부터 드레시한 것까지 광범위하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식의 복장은 원칙적으로 원피스 형식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여자의 기본 복식인 튜닉은 원피스인데, 옷 길이는 가슴 선에서 발목까지이고 어깨에 1~2개의 멜빵이 달려 있거나 V자형으로 끈이 달리고 가슴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에 밀착된 형태로서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입었고, 상류 여성의 것은 점차 아름답게 변천되었다.

이집트 국력 신장과 더불어 정복지인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옷이 바로 로브(robe, kalasiris)로서, 남, 여가 입었다. 이것은 신장 2배의 길이의 천을 반으로 접어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목둘레를 파고 양옆을 트거나 꿰맨 것이었다. 허리에 폭 넓은 천을 벨트처럼 돌려 입음으로써 소매가 생기고 주름이 잡혀 장려한 분위기가 생기므로 왕과 왕족 사제자들이 많이 입었다. 포권포의 (haik)도 남녀가 입는 아라비아 옷으로, 현대 인도의 사리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 후 그리스, 로마에서도 중세 후기까지 튜닉을 착용했으며, 이집트에서 단순했던 디자인의 로브가 화려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타났다.

16~17세기의 여자의 복식은 가운이었는데 화려함이 절정에 달했다. 19세기초 영국과 프랑스에서 비로소 복잡한 장식없이 보석류를 간단히 장식한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가 착용되었다. 원피스 스타일의 드레스는 근대복식에서 엠파이어(empire), 크리놀린(crinoline), 버슬(bustle) 스타일의 차례로 변천하다가 1910년, 호블(hobble)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1911년 테일러드 슈트가 처음으로 나타나 원피스와 함께 정장에 착용되었다.

종류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① 예복으로서 식용의 웨딩드레스와 사교용의 애프터눈, 이브닝, 칵테일 드레스가 있고, ② 외출복 일상복으로서 타운 웨어, 칼리지 웨어, 비즈니스 웨어, 트래블 웨어 등이 있고, ③ 홈웨어로서 홈드레스 또는 하우스 코트, 에퓨전 드레스 등이 있고 ④ 운동복으로 테니스 웨어, 스키웨어 ⑤ 레저웨어로 하이킹 웨어 선드레스 ⑥ 특수복으로 무대의상, 민속의상, 임신복 등이 있다.

실루엣별로 분류하면 ① 프린세스 실루엣(princess silhouette)으로서 어깨 진동둘레에 절개선을 넣은 형 ② 로웨이스트(low waist) 실루엣으로서 웨이스트라인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진 형 ③ 하이웨이스트(high waist) 실루엣으로서 웨이스트라인의 위치를 위로 올린 형 ④ 시프트(shift) 실루엣으로서 웨이스트에 절개선 없이 허리에 벨트를 매는 형 ⑤ 베어톱(bare top) 실루엣으로서 어깨를 노출시킨 형 ⑥ 코슬릿(corselet), 실루엣으로서 코르셋형으로 허리 부분에 넓게 벨트를 대어 허리를 꼭 끼게 한 형 ⑦ 색(sack) 실루엣으로서 허리선을 직선으로 내린 H라인 형 ⑧ 코트 드레스(coast dress)와 실루엣으로서 코트 모양으로 앞 전체가 트인 형 ⑨ 셔츠(shirt) 실루엣으로서 스포츠 칼라 또는 와이셔츠 칼라로 된 스포티한 형의 실루엣 등이 있다.

3. 투피스(two piece)

상, 하 2부분으로 구성된 옷. 투피스 드레스를 줄인 말로 형식상 위 아래로 분류된 것으로 2조각의 옷감, 또는 2종류의 천으로 만든 투피스 스커트, 투피스 슬리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 하의 같은 감으로 만든 의복을 말하는데, 상 하의 감이 다를 때는 이를 세퍼릿(separate)이라고 한다. 재킷과 스커트, 블라우스와 스커트, 볼레로와 스커트 등으로 짝을 지어 입는다. 원피스, 스리피스에 대응되는 말이며, 슈트도 투피스의 일종이지만 모양이 딱딱하고 투피스는 유연한 느낌을 준다.

4. 스리피스(three piece)

남성복에서는 상의, 베스트, 바지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의복, 여성복에서는 양상블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의, 베스트, 스커트 또는 팬츠 등 3가지로 구성된 것. 이외에도 상의, 블라우스, 스커트(팬츠) 또는 코트 상의, 스커트(팬츠)로 구성된 것을 말하기도 한다. 현재 신사복으로 입은 남성의 스리피스 형식은 17세기 말의 쥐스토코르(justaucorps), 베스트(veste), 쿨로트(culottes)에서 유래하며, 19세기 중반

에 확립되었다. 이것이 사무실에서 근무시 착용하는 비즈니스 웨어로 일반화 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19세기 말 시작되어 남녀 동등의 사회운동, 남성복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직장여성의 일반적인 복장이나 유니폼으로 많이 입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반드시 같은 소재와 무늬가 아니더라도 소재, 색, 무늬면에서 재치 있는 코디네이트를 하여 멋을 내기도 하는데, 이를 스리피스 세퍼레이트(three piece separates)라고 한다.